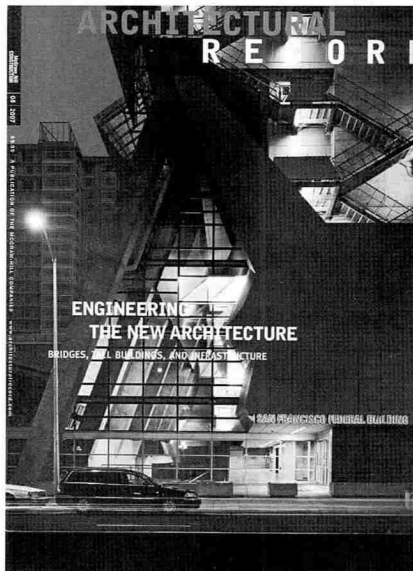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8월호는 공학에 의거하는 디자인들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모포시스의 U.S. Federal building, Murphy/Jahn의 Suvarnabhumi 공항, Ingenhoven Architects의 루프트한자 항공 센터, agp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케이블카 정류소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건축사와 공학자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Nina Pappaport의 에세이이다.

■ Books

종종 Record 지의 주제 선정은 근간 서적에 대한 촘촘한 검색과 내용의 네트워킹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번 호도 역시 주제에 맞춰 건축사와 엔지니어들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마법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 Building : 3,000 Years of Desig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By Bill Addis NY:Phaidon, 2007
- Ove Arup : Masterbuilder of Twentieth Century by Peter Jones. New Haven : Yale univ. press, 2006
- Materials for Design by Victoria Bell with Patrick Rand.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Liquid Stone : New Architecture in Concrete edited by Jean Louis Cohen and G. Martin Moeller, J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Failed Stone : Problems and Solutions with Concrete and Masonry by Patrick Loughran Basel : Birkhauser, 2006

■ project

Suvarnabhumi 공항 터미널

(태국, 방콕/ 건축사: Murphy/Jahn / 엔지니어: Werner Sobek, Matthias Schuler)

이 공항 터미널은 중앙부에 파빌리온이 있고, 그 위에 거대한 캔틸레버 형태의 캐노피와 장대한 튜브모양의 콘코스가 위치하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중앙 파빌리온 앞에는 한쌍의 주차 시설이 되어있는데 콘코스의 상부는 유리 와 트러스, 막구조로 되어 있다. 콘코스는 항공기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건물은 은색-회색 계열의 모노크롬적 요소와 코발트 블루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부 파빌리온 근처의 기하학적 요소의 원뿔과 수로와 잔디와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Geometric garden은 항공기에서 내리거나 항공기로 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가되어 있으며 장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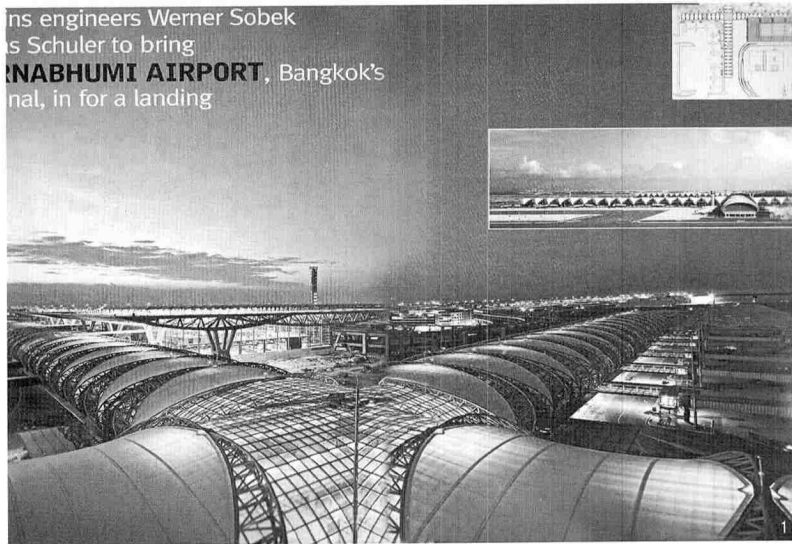
축물에 숨겨져 있는 작은 위트이기도 하다. 중앙 통로에서 중앙 파빌리온은 그것이 취하고 있는 구조적 미학을 잔뜩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엄청난 투명성과 캐이블로 매단 파사드의 역할이 크다. 천정 캐노피는 최대한의 태양광을 내부로 유입시키도록 고안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부 구조를 반짝거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 건축물은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현재 공항터미널이 고민하고 있는 기능적 한계들과 미학적 가치들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다시 건축이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엔지니어링의 협업이 대단히 유용한 방식임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Lufthansa Aviation Center
(항공사 건물/ 독일, 프랑크푸르트 / 건축사: Ingenhoven Architects/ 엔지니어: Werner Sobek and Klaus Daniels)

건물의 투명성을 제고할 때 가장 고민거리는 어떻게 열손실과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것이다. 넓은 판유리와 경콘크리트 패널은 항공과 관련된 가벼움의 감각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와 엔지니어는 여러가지 고안들을 하고 있다. 오픈스 쪽에는 삼중 판유리를 설치하여 공항 주변의 소음을 막는 동시에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는 효과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부는 10개의 배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배리 사이사이에는 조경이 되어 있는 유리정원 형태의 아트리움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와 격리된 내부라는 인식을 경감시켜며 동시에 내부 환경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원형태의 아트리움의 기능은 거기에만 멈추지 않는다. 이 정원은 내 외부의 공기 순환과 정화, 배기를 촉발시키는 유기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건물 내부는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건축물은 기술지향적 독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가지 모순-거대함과 친환경적일 것, 투명성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 suvarnabhumi airport
2, 3, 4. lufthansa aviation center



Portland Aerial Tram

(케이블카 정류장/ 오레곤/ 건축사: agps architecture/ 엔지니어 : Arup)

케이블카는 오레곤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의 언덕 부분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신축 의대 캠퍼스를 연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두 캠퍼스를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이 케이블카와 그에

달린 시설들은 언덕 아래의 고밀도/ 복합용도의 근린을 상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언덕으로 인해 분리된 도시적 정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와 기능과 상징성이 유사함에도 이 케이블카 시설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이 시설들이 교묘하게 조각적이면서도 기술적 과시는 숨기는 노련한 태도에 기인한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

는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따르면서도 이 건축물은 일반적인 공장이나 기계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놓이기 쉬운 기계미학과 흥미로운 형태의 안정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는데에서 놓이기 힘든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

portland aerial

